



2023
나의 영혼을 위한 노트

서안출판

<https://www.westpeace33.net>

2023 나의 영혼을 위한 노트

(이 글은 2023년 서안교회 수요, 일요 성경 공부 내용을 모아 정리한 노트입니다)

서안출판/ <https://www.westpeace33.net>

305-3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148번길 22, 301동 403호

<https://blog.naver.com/shindk55>

shindk55@gmail.com



2023

나의 영혼을 위한 노트

머리 글

가시광선(可視光線)이라는 말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있으므로 사용 되는 단어이다.

사람의 눈으로 모든 빛을 볼 수 없다.

사람의 귀로 모든 음파를 감지할 수 없다.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범위는 만물의 일부분이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희로애락도 부분적이고 순간적이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일부분을 경험하고 일부분을 아는 인생이 스스로 전체를 아는 존재로 여긴다면 이 사람은 어두움에 속한 자이고 교만한 자이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요1:5,10]

하나님의 복음은 영적 소경, 중풍병자, 문둥병자, 죽은 자들에게 들리는 영적 지식이다.

이 지식은 죽은 자를 살리는 지식이지 육체를 세우는 지식이 아니다.

이 지식에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포함한다. *[전3:11, 잠25:3]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시71:15]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붙잡힌 구원"을 증거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빌3:12]

"붙잡힌 구원"은 안전하지만, 만일 "붙잡은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놓칠까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10:12]

하나님의 구원은 "세워 놓은 구원"이 아니라 "붙잡아 주시고 섬겨주시는 구원"이다. (본문-선 줄로 생각하는 자/ 20230913- 에서)

2026. 4. 4. 금산 두두리에서

신 등국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4:4/ 2023010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4:4]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시험하는 자, 마귀에 대하여 예수께서 나타내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덮어 물리치며 그 능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가지 사실은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였다는 점이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고후11:14]로 가장하는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며 자기 일을 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라는 의미보다도, 기록된 말씀 속의 일관되고 총체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한다.

'예수'의 헬라어 '이예수스'는 히브리어 '예호슈아'이다.

'예호슈아'는 '예호바'와 '야샤'의 합성어이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응축된 표현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5:39]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다.

만일 말씀의 방향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말씀을 빙자한 거짓 세력의 농간이다.

오늘도 이 거짓 세력은 인생의 원욕(原欲)에 실려 나타난다. *[요일2:16, 약1:15]

이 마귀의 사역을 허구의 세력으로 처리해 주는 유일한 힘은 여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6:54,55] &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눅13:1-9/ 20230104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눅13:5]

사람들이 예수께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물어 왔다.

빌라도의 제사에 제물이 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이방인에게 정복 당한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묻는 물음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해 받은 자나 해 받지 아니한 자의 죄가 문제인 것이 아니

라 회개치 아니함을 인한 결과"임을 밝히셨다.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물과 거름을 잘 주어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할 문제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일의 시작과 결과를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드려야 마땅하다. *[요1:3,대상29:11-12]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방향을 상실하였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을 암시하고 있다.

아담 안의 모든 인생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이 '동(東)'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신 세계는 '서(西)'에 있다.

방향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노를 젓는 수고가 아니라 방향을 잡는 일이다.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표적이며 안식이며 실체이다. *[요6:26, 눅2:25-32]

그러나 이 백성의 눈은 가리었고*[사6:9, 마13:14]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는 그들의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길을 가고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이 아닌가?

이 패역한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예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10:10-18/ 20230108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10:10]

이 세상 기독교인들 중에 성도의 삶이 "성화(聖化)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과 대치될 뿐만아니라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하는 자의 허언(虛言)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인 "거룩함을 얻었다"는 완료된 결과의 기록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총체적 사역의 결과이고,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의 마음에 맺혀진 하나님의 권능이며 구원의 확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진 결과이고 성령의 인(印) 치심으로 "거룩함"을 얻고 누리는 세계이다.

하나님께서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세계를 누리게 하신다.

결코 사람의 의지나 수고가 요구되는 세계가 아니다. 도리어 사람의 의지나 수고 가 거세된 곳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세계이다.

양자(養子) 입양이 확정되었는데*[로8:15, 갈4:6], 여전히 양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는 정신과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룩하게 된 자가 거룩하려고 노력한다면 거룩한 자가 아니다.

온 몸이 깨끗한(거룩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의 사역은*[요13:] 그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허구의 세력을 씻어주시는 사역이 아닌가?

만일 그 허구의 세력이 씻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되려 하고 "성화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히10:29]이고 십자가의 원수*[벧3:18]이

다.

오리 사이에 태어난 백조가 어느날 자신이 백조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백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백조가 백조 되려는 수고가 아니라 하늘을 날고 있는 백조들과 함께하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참 성도', '덜 성도'가 있을 수 없다.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엡1:13]의 믿음은 성령이 보증하는 믿음이다. 결코 사람으로 말이암은 복음이 아니고,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후1:24]

거룩함을 입은 성도, 성화된 성도에게는 성령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일이 남아 있다.*[벧후3:18, 엡3:18-19]
자라가는 일은 '성장(成長)'이지 '성화(聖化)'가 아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족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사66:8]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1:3]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거룩한 믿음이 보존되는 곳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1:20-21] ☩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4:26]

창 세기 4장에는 가인과 가인의 후예(後裔)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주장(主張)이 지면(紙面)을 진동한다.

가인의 주장은 아벨을 죽일만큼 강하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생존의 굴레에 매인 삶을 산다.

가인의 5대손 라멕에 이르러 가인의 세계가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난다. 아담 안의 모든 인생의 삶을 설명하여 줄 수 있는 조상들의 형상이다.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이들의 세계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이 겪고 있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욕구의 세계와,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어와 공격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전부이다.

라멕의 외침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처절한 속살을 드러낸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을 칠십 칠배를 받을 것이다!"

이 복수의 공격성을 증거하는 흔적들이 자신들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죽이고 죽는 인생의 마음에 "살기 위하여"라는 비진리의 세력이 덮여 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현장에 소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
소망은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셋의 아들 '에노스'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자신의 근본을 아는 인생은 비로소 존재의 시작이 되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아담에게서 나온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얻는 일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행2:21, 롬10:13] ✞

지극히 작은 자/ 마25:40-46/ 2023011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25:45-46]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염소는 마귀의 사자에 속한 영벌을 받게 되었다.
이 심판의 결정적인 근거에 '지극히 작은 자와의 관계'가 있다.

"너는 나를 공양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羊)은 동의할 수 없었고, "너는 나를 공양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염소도 동의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서는 공양의 증거와 심판의 근거를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것으로 옮기셨다.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막4:31]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흠모할 것 없고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바 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수는 '지극히 작은 자'의 형상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형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1-12]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한 죄인은 의롭다는 하나님의 판정을 받는다. * [마9:13, 롬3:28]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는 '예수'라는 이름이 믿어진 자들이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눅18:9-14]는 염소와 양의 세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바리새인과 같은 부요함으로는 바늘 구멍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문*[눅18:18-30]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세리는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인*[막7:26]은 그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져 오직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왔다.

'지극히 작은 자'이신 예수와, '하나님의 긍휼'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산산히 부서진 가난한 여인이 만났다.

결국 예수는 여인을 위하고, 여인은 주를 위한 관계가 되었다. ☞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5:1]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21:2]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 입을 마음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육신에 대한 인식이 새로 입을 옷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육체라는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그리스도인이 덧입는 옷이 있다.

덧입는다는 뜻은 입고 있는 옷 위에 겹쳐 입는 것이다.

이 덧옷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옷이고*[갈3:27], 성도들의 육체를 제어하는 전신갑주*[엡6:11]가 아니겠는가?

이 옷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세력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계21:1-4]을 누리게 한다.

이 곳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 곳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는 세계이다.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그 세계를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맛 본 자에게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는' 사건은 어떤 의미인가?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116:7-9,15] 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롬1:17-23/ 20230122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롬1:18]

불의(不義)는 하나님을 향하여 옳지 않은, 죄의 총칭이다.
알든 모르든 죄인은 불의를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다.
죄인은 아담 안의 모든 인생의 타고난 신분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한 자들이다.
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복음에 나타난 두가지 하나님의 의에 다스려진 사람은 '의롭다'고 인(印)쳐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롬3:21,22,엡1:13]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요5:46]

이렇게 의인(義人)의 신분은 다스려지고 믿어진 결과이지 행위의 산물이 아니다.
*[롬4:2,갈2:16]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 55:7]

이 불의는 육체의 생각을 통해 나타내는 선천적 세력이다.
예수께서 이런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벧전3:18]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함께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이 복음은 오늘도 의인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있다. *[롬10:21, 사65:2]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 22:11] ☞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1:28]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의 불의(不義)는 결국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내고, 그 우상은 하나님을 상실한 자의 마음에 자리잡고 합당치 못한 일들을 토해 낸다. 불의, 추악, 탐욕..... 등이다.

이 사형에 해당하는 삶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은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과 같이, 행위의 시작인 마음의 세계를 설명하여 준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마음에 이미 '스스로 원하는 하나님(우상)'이 만들어져 있다.

이 허상의 세력은 가식과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마음에 할례가 되지 못한 유대인에게 할례는 훈장이고 계급이 되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표시의 할례가 육체를 자랑하는 장식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상실한 자의 모습이고 지극히 가증한 종교적 행태이다. *[빌3:2-3]

예나 지금이나 모든 육체의 요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인생은 있어도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에 성공한 인생은 없다. *[마26:41,롬7:18]

마음에 뿌리치고 있는 우상과 육신의 욕망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롬7:2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탄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준다. ☩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눅12:4-5]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씀은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께 나아올 때, 제자들에 주신 주님의 경고이시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감추고 숨긴 위선(僞善)을 지적하시고 그 결과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지옥'의 헬라어 '게엔나'는 히브리어 '게헨놈(헨놈의 골짜기)'의 음역이다. '게(골짜기)'의 어원에 '교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영원한 형벌이 행해지는 장소'의 의미로 말씀하신 '지옥'은 열번 이상 성경(개역한글)에 기록되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죽음 후의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에 관한 일이고, 죽음 후의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혼에 관한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계된 일이다. 곧 죄와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전3:20-21]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며 육체를 세우는 자의 '외식과 위선'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구체적인 행태이다.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지극히 단호하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16:18]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나아올 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향한 마음과 교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이다.

오늘날 예수를 찾는 이들 앞에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찌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눅11:5-8]

세 벗이 있다.

먼저, 여행 중에 찾아 온 벗이 있고, 찾아 온 벗을 위하여 늦은 시간이지만 떡이 있는 벗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강청함으로 떡을 얻는 벗이 있고, 그리고 떡이 있는 벗이 있다.

순서대로 이 세 벗을 A, B, C로 명한다면, C는 떡이 있는 벗, B는 A를 위하여 떡을 구해 주는 벗, A는 은혜를 입는 벗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의 모습은 A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떡이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세 친구의 관계는 성도의 삶을 설명하여 주고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B는 예수와 보혜사 성령의 형상이다.

A는 B의 공로로 생명을 얻었고 B의 섬김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

B의 강청함은 닫힌 문을 열게 하였고, A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준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8:26]

성도를 위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한다.

거룩함을 입은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장(保障)이 되며, 그 보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타내는 삶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1)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2)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롬1:1-6]

로마서는 바울 자신과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기록으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약속의 현현(顯現)이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이 사실이 믿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권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전3:23]

이는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회복된 결과이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속하였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엡2:2-3]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그 존재의 근거와 보장(保障)과 결과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 자신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자신을 세우고 자신이 자신의 장래를 염려하는 수고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벧전2:9]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가를

전하는 일이다. *[고전15:10]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의 삶을 사는 일이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후4:5]

복음을 인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바울은 신령한 은사(영적 선물)를 전하려 한다.

그 은사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전 9:14]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창9:18-27/ 20230212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창9:18]

하나님은 육체를 저주하셨다. *[창6:3]

노아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는 홍수의 저주 가운데 방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이끌림을 받았다. *[창7:2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을 인하여는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창8:21]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들들을 축복하시면서 이후에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을 하신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9:13]

이는 홍수의 저주를 이긴 방주, 먹구름의 저주를 이기는 무지개 약속이고 육체의 저주를 이기는 구원의 예표(豫表)이다.

포도주에 취하여 장막 안에서 별거벗은 아비 노아의 하체를 본 아들 함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고, 형제들은 옷을 취하여 뒷걸음으로 아비에게 다가가 하체를 덮어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허물을 본 미갈처럼*[삼하6:20] 함은 아비의 허물을 보았고 그 허물을 형제들에게 고한다.

함은 아비의 허물을 보았지만 그의 행위에서 허물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저주와 이 저주를 이긴 은혜의 방주와 무지개 약속을 찾아 볼 수 없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벧전3:21]

노아가 육체의 더러움이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다.

셈과 야벳과 함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표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처와 며느리의 관계이지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은혜의 아들들'이다.

이 기준을 가나안에게 적용하면 가나안도 은혜의 아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마23:9]

셈도 야벳도 아들을 낳았지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말만 두번(18절, 22절) 기록된 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였다.

저주의 내용은 마땅히 누려야 할 '셈의 장막'을 잃고, 형제 관계에서 종의 신분으로 옮겨지는 일이다.

셈의 장막은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를 의미한다. *^[히12:23]

노아와 셈과 야벳은 이 은혜를 누리는 마음으로 장막에 함께 할 수 있지만 함의 모습은 그 은혜와 구원의 세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아비의 형상만을 나타내는 가나안이라면, 은혜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개 약속과 상관 없는, 육체뿐인 인생의 수고만이 그의 전부가 아니겠는가? &

성령을 받으라/ 요20:19-23/ 20230215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20:21-2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그러나 제자 중에 이 말씀을 믿거나 삼 일(72시간)을 헤아리고 고대하며 부활을 기다린 자는 없었다.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가졌다면 제자들의 모인 곳의 문빗장을 질러 놓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닫힌 공간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먼저 평강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하신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 앞의 제자들은 어떠한가?

비록 부활의 예수를 직접 보게 되었을지라도, 도마처럼 손과 옆구리의 상흔에 손

가락을 넣어 확인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아 그 세력에 이끌리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눅16:31]

본 것을 의지하는데 익숙한 인생*^[골2:18]에게 본 것을 의지하여 형성된 믿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다.

이 믿음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시각과 촉각 등의 감각과 그 감각을 근거로 형성된 생각을 의지한다.

도마의 믿음은 자기 판단의 결과이지 말씀에 다스려진 영적 결과가 될 수 없다.

성령의 이끌림은 '듣고 믿음'으로 된 결과이고 믿음의 실현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어나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이다. *^[요6:63]

제자들은 들었으나 그 마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제자들의 생각을 따라 만들어진 믿음이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삼켜 버렸다.

예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육신의 정욕으로 기울어진 모든 인생의 불의함을 짊어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가?

예수께서는 땅에서 들리실 때,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불의가 드러났고 심판을 받았다. *^[요3:14,15, 요12:32]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육신의 기울어진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탄식(?)하시며 부탁하시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전15:20] ☞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 된 암소와 삼년 된 암염소와 삼년 된 수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찌니라 [창15:8-9]

아브람은 왕들과의 전쟁에서(창14장) 집에서 길리운 자 318인을 이끌고 나아
가 승리하였고, 멜기세덱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지만 어떤 두려움이
아브람에게 있었다.

창세기 15장은 이러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이고 상급
이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그의 마음을 이끄셨다.

아브람의 마음에 자리잡은 자신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의 마음에 받아드리기에 어려운 후사에 관한 계획을 제시
하였다.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아브람이*[롬4:19]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
사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드리려면, 아브람의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
는 '엘리에셀'을 내려 놓아야만 한다.

결국 아브람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약속의 증표를 구하는 아브람에게 삼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과 비
둘기를 헌물로 취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취하라는 말씀을 기억케
한다.

소나 양에게 삼년이라는 연령은 번식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목축자에게 가장 귀히 여길만한 것이다.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욘22:24,25]

아브람이 엘리에셀을 내려 놓는 일은 아브람의 생각과 계획과 삶의 축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겨짐을 의미한다.

이 믿음은 마치 죽은 몸을 산 몸으로 여겨야 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일*[벧 3:10]과 같다.

아브람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심히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이끌림을 받았다.

삼년된 암소가,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브람에게 귀한 것이지만 이것들이 아브람을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25:10] ☞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 히11:13-16/ 20230222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11:16]

나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나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여 주기 위한 잠시 세계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진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세계를 누리는 삶을 산다.

말씀에 다스려진 믿음을 가진 아벨은 말씀을 거부하는 가인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였고 그 죽음이 아벨의 옳음과 하나님께 속한 아벨임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자기 몸에서 어떻게 후사가 나오지, 어떻게 하늘의 못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될지를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약속대로 가나안 일경을 소유할 수 있었고 약속대로 이사를 낳았지만, 그 보이는 것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또 말씀을 따라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 집에 머물러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승전에 함께한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야 할 상황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을 따라 갔고, 이사를 품고 살아야 할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 모리아 땅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만한 상황을 배경으로 나타난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본으로 삼으셨다.

오늘도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을 찾아가는 행복한 나그네의 길을 걷는다.

물론 이 나그네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줄 맛 본 자이다. ☺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롬2:28,29]

로마서 1장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력의 구체적인 형상이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으로 설명된다.

바울의 사역 중에 바울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자들은 표면적 유대인으로 여겨진다. *[빌3:2,18]

바울은 '판단하는 자'를 향한 탄식으로 로마서 2장을 기록하였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판단하는 불의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창2:17]

아담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처럼, '판단하는 자'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판단(하나님의 의)을 듣고도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회개케 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은 불의한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이다.

구원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화되어서 자신의 모든 판단(불의)을 내려 놓고 할례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의)과 결정에 참여하는 일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되지 못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자의 길을 간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에 다스려지지 못한 마음은 복음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들이야말로 무늬뿐인 복음을 말하는 자이고 오늘날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겠는가? ☺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6:9]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들*^[롬8:14]일진데, 아버지의 영의 인도함을 거부한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일 수 없다. *^[사1:4]

하나님께서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슬퍼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육체 뿐인 인생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심판은 하나님의 영을 거부한 모든 육체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방주를 통하여 보여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회복이다.

'육체 뿐인 인생'에 대하여 '육체에 대한 결별을 선고(宣告)'하신 하나님 앞에 노아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모든 인생은 불의하다. *^[롬3:10-18]

물 속에 잠긴 모든 인생과 노아와의 다른 점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하나님의 증거 외에 아무 것도 없다.

홍수 전에 노아의 마음에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다.

이 저주와 심판에 대한 믿음이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한다.

구원의 믿음은 심판 이전에 형성되는 세계이다.

홍수 전에 방주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 이전에 결정된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구원이 예비된 심판이다.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완전'이 세워진다.

이 '의와 완전'은 심판의 경고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져 자리 잡은 노아의 믿음이다. *[히11:7]
'의와 완전'은 육신의 세력이 거세된 세계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노아는 완전하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창6:9]

이 하나님의 판정은 홍수 이후의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노아는 홍수 전에 이미 경고의 말씀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노아는 방주를 통하여 얻은 새 생명을 누린다.

방주에 보존된 것이 결코 350년을 더 산 노아의 수명만이 아니다.
홍수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부활을 전하는 예표*[벧전3:21]이다. &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롬2:29-3:4/ 20230305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닌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롬2:29]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찌어다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롬3:4]

마치 지구의 자전을 믿고 있는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태양이 지구
를 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할례 된 마음은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낸다. *[갈5:17, 롬8:13]

인생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제어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사
64:6]

인생이 중력을 거스릴 힘이 없어서 땅에 붙어 사는 것처럼, 인생의 중심에 죄를 이
길 힘이 없다. *[시65:3]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 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끝 자가 없으리라 [렘4:4]

할례는 육체에 속한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의 규례이다.

백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는 인위적인 결심이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고, 아브람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삶으로의 도약이다.

이 도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후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길갈에서 행한 할례를 통하여 설명된다.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길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예법이다.

할례된 마음에 그어진 선은 사람과 하나님을 나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3:20/ 20230308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3:20]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증거로 로마서 1장 18절로 시작하여 3장 18절을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는 일, 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롬1:17, 례4:28]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빛깔'의 세계를 알 수 없다.

이 세계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세계이다.

그러나 소경이 눈을 뜨는 순간 '빛깔'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

이처럼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도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사람의 중심이 비춰지면 죄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다.

유다의 죄가 단뿔에 새겨진 것처럼*[렘17:1], 모든 죄는 하나님의 권위(뿔)에 대한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권위는 '진리의 말씀'에 있고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자신의 마음 중심에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죄를 깨닫는 자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공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패역이 깨달아진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공훈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단9:9] &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찌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롬4:4-8]

다윗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불법을 사하심 받은 자,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다.

이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진 자들이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43:25]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결정에 대한 확신은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열매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1:6]

이 복된 구원의 세계는 인생의 수고와 정성의 댓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음에 확신과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다윗의 행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누리는 복은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의 형통함과 같은 삶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된 나라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전1:30]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인하여 다윗과 같은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다 [마23:29-31]

선지자의 비석을 꾸미는 자가 자신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할 자로 여긴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요5:46]

율법을 알지만 율법에 다스려지지 못한 사람은 아는 그 율법 위에 앉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인다.

할례가 마음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그 할례가 자신을 꾸미는 장식이 된다.

선지자의 죽음을 기념한다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피하지 않은 죽음*[히11:35]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가?

무덤을 꾸미는 자가 "내가 그 때 있었다면 당신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할아버지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나는 선지자의 자손이 아닙니다"라는 뜻이 된다.

선지자는 자신의 우월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고 대언(代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월주의 세력으로 진동한다.

이 우월주의는 사람의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의 집합체이고, 오늘날 이 세상에 가득 찬 권세*[엡2:2]이다.

육체를 신뢰하는 일, 사람이 세워지는 일을 간과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교회이다.

이 세상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모양을 내는', '비석을 꾸미는 일'에 집착한다. ☞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 [히9:28]

예수께서는 세상 끝에 오셨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첫번째 세상을 예수와 함께 끝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가운데 두번째 나타나실 예수를 기다린다. * [고후5:17, 요14:26, 행1:11]
그러나 첫번째 세상을 예수와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예수와 상관이 없다.

모든 인생에게 첫번째 세상은 죄가 처리될 수 있는 기회이다.
죄를 알고 인생을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안에 속한 은혜의 세계가 예수와 함께하는 세계이다. * [롬3:23-24]

첫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
*[요1:29]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는 확증을 남기시고 첫번째 세상, 이 땅에서
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 [요19:30]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과 새 몸을 입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 [눅1:77, 살전4:16-17, 고전15:51-52]

이 땅에 남겨 놓은 '죄 사함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 [히
10:16-18]

재림 예수는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 * [마24:23-27]

두번째 나타나실 그리스도는 공중에 임하시며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들'과 함께하신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롬8:23] &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곧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창42:9]

정탐(偵探), Spy는 복수(複數)의 신분을 가지고 가려진 신분을 위하여 꾸며진 신분으로 일하는 자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곡물을 사려는 신분으로 섰지만, 총리는 이들을 애굽의 틈을 엿보려는 정탐하는 자들로 여긴다.

요셉의 형들은 날벼락과 같은 이 상황을 시작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의 계략(?)에 끌려간다.

결국 요셉의 형들의 가려져 있던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요셉의 꿈은 성취되고 형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 독실(篤實)하고 진실한 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위한 것이다. * [마9:13, 막2:17]

그러나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의 근본을 잊고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는 노력은 꾸며진 신분으로 위장한 간첩 활동과 같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첩(重疊)된 신분이 있다.

육에 속한 이전 신분과 하나님께 속한 새 신분이다. * [고후5:17]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신분이 충돌*[갈5:17]이 있고, 그 곳에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새 신분의 삶을 살 수 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5:13]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전 것을 허상으로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삶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고후5:6-7] ✎

이단/ 딤훈3:10-11/ 20230326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딤훈3:10-11]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교회는 유대교에게 이단이였다.
당시 예수의 도(道)가 이단이고 바울은 이단의 괴수로 불렸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여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행24:5]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포함한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성공한 교회* [마23:29-36]들이 많다.

예수께서 당시 성공한 종교 집단에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렇다.

인수(人數)와 규모에 집착하는 종교 집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보증에 만족한다.

이단(異端)이라는 말은 이 땅에 득세한 종교 활동가들의 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다.

주로 자신들의 체제나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상대방을 아주 쉽게 사악한 단체로 취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단이다.

물론 자신들은 성경을 근거로 내린 판단이라고 하겠지만 그 행위의 열매, 성경적이지 못한 우월적 위치의 판단과 다툼의 결과가 그들의 소속을 증거한다.

이단이라는 단어는 개역한글 성경에 5회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고"*[딤후3:11],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벧후2:1]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스스로 죄를 정하고, 스스로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취하는 자"가 이단이다.

이단의 헬라어 어원에서 분리, 당파, 이단과 함께 '선택'이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이 '선택'이라는 의미는 이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스스로 죄를 정하고, 스스로 주를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주를 선택하는 자는 예수의 선택과 예수의 섬김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빌3:12]

바울은 잡힌바 된 신앙으로 잡힌바 된 구원을 확인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단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에 만족하려 하고, 스스로 택한 길을 간다. ☹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마6:9,10/ 2023032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6:9,10]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건축된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본이 모형이 전하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33년 후에,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히1:3,10:12, 요 17:5, 엠1:4]

이 성취는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록된 기도의 성취이다.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더 이상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살전4:3]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10:9,10]

첫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과 규례이지만 모형이다.

모형은 실체가 오시면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둘째 것이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실체가 세워졌으면 모형은 저절로 버려진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모형 안에 갇혀서 여전히 실체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마음에 실체가 세워지지 못한 사람은 모형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원함이나 노력으로 거룩하여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게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세계이다.

"이루어지이다"는 바라는바, 기원(祈願)의 표현이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 본 사람은 더 이상 합격을 기원하지 않는다.

죄의 빛으로 고통받던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빛을 탕감 받은 고지서를 받아 보게 되었다면 더 이상 죄의 탕감을 기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죄인에게 주신 은혜의 탕감 고지서이고 하늘나라 합격 통지서이다.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요19:30]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알고도 "다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만홀(漫忽)히 여기는 자가 아니겠는가? *[갈 6:7,8] 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1:20,21]

하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에 선 자들의 모임이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하는 곳이다.
*[고후1:24]

믿음은 진리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자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엡1:13,사49:8]

유다서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권고의 편지이다. *[3절]

싸움의 대상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고, *[4절] 성경에 이미 기록된 내용으로 이 거짓 세력이 설명되어 있다.

이들은 당을 짓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결국 이들은 교회 안에 용납될 수 없는 육신의 세력과 복음을 빙자한 자기 정욕을 뿜어낸다.

유다의 권고는 믿음의 도를 가진 자가 믿음을 떠난 자*[딤후4:1]에 대한 경계(警戒)이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다.

'지극히 거룩함'이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와 함께한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주신 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켜 주신다.

이 믿음은 성도를 지키는 세력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지혜이다.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도의 삶과 결과를 지켜주신다. ☩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창1:6-7]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3:4]

집을 짓기 위한 계획의 구체적인 설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거룩한 계획은 일관된 질서와 법칙을 근거로 설계되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첩경이다.

3,500년 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법과 위 속죄소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시작과 결과는 하나님이 제시한 법에 근거한다.

이 하나님의 제시한 법에 다스려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창세의 시작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땅에 속한 법과 땅 위에 속한 법으로 나뉘어 집행된다.

아담에게 임한 "먹지 말라"는 최초의 법은 아담 안에 있는 이 법을 거부하는 세력을 드러내었다. *[딤후1:9]

이 법을 시작으로 땅에 속한 모든 인생은 땅에 속한 법인 '죄와 사망의 법'과 함께 사망에 이른다. *[롬3:23]

히브리어 '율법[to-law]토라'의 어원에 '흐르다[yaw-law]야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모든 인생과 함께 저주의 바다에 이르도록 정해 놓은 법이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대

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3:10]

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자들에게 율법은 몽학 선생*[갈3:24]이 되어 하늘에 속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인도한다.

마치 바다에 도달한 물이 다시 하늘에 올라 구름이 되는 것처럼 사망과 흑암의 땅에 속한 줄 알게 된 인생에게 하늘에 속한 생명의 법이 집행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사9:2] ✎

사람과 죄/ 롬5:12-14/ 20230409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롬5:12-14]

고장에서 생산된 물건에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오** 목적과 설계와 실행과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창조의 중심에 하나님과 두 아담이 있다.

흠에 속한 첫째 아담*[고전15:47]은 하나님을 잃어 버렸다.

"먹지 말라"는 법은 숨어 있는 아담의 죄를 드러냈다.

그렇게 첫째 아담이 죄를 드러내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이라는 왕의 통치 아래 갇혔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찌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렘13:23]

죄인은 출생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다 [시78:39]

"육체 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망으로 결정된 인생을 설명해 주는 말이다.

육체 뿐인 인생은 죄를 이길 수도, 벗어날 수도 없다.
'죄와 사망'의 세력 안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 첫째 아담의 세계는 큰 무덤이다.
이 무덤에 갇혀 있는 자에게 들리는 둘째 아담의 음성이 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5:25] ☞

여호와 하나님/ 창4:26, 출3:13-15/ 20230412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4:26]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의 히브리어 '에노쉬(en-ohsh)'의 어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지기 쉽고 약하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에노스 이전의 상황인 창세기 4장의 내용은 가인과 가인의 후예(後裔)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없는 그들의 주장(主張)이 지면(紙面)을 진동한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방어와 공격의 삶이다.

아담은 "아벨 대신 주신 씨"로 여기는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아들의 이름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그 때에 비로소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렀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와의 사자를 만났다.

마땅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존재의 힘에 다스려지는 현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거기에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

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히셨다.

이 말씀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영원한 존재의 세력 안으로 옮기신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고있다. [롬 4:17]

'여호와'는 하나님의 명칭이다.

이 '전능의 존재'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 *[사48:9-12]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한 피조물의 탄식은 전능의 존재인 창조주께서 듣고 찾으시는 대상이 아니겠는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43:25] &

아브라함과 믿음/ 창12:1-3/ 20230416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12:1-3]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아는 자이다. *[요1:3, 히11:3]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근거이고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는 힘이다. *[히11: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택하셨다. *[히11:12, 사51:1,2]

자식이 없는 칠십 오세의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렐22:21]

하나님의 아브람에게 명한 말씀은 "떠나라"와 "되리라"이다. *[창12:1,2]

만일 떠나지 않는다면 아브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떠날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만일 떠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은 모두 하나님의 준비한 세계이다. *[창22:14/ 여호와 이레]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아브람의 세계이고, 인간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고,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혼잡되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절한 차안(此岸)의 세계이다. *[시107:10-30]

이 사실이 믿어진 자의 믿음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일 수 없다.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엡2:8]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 이미 주어진 세계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영역을 떠났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가 되었다. ☞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라 하니라 [마1:21]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라 [마3:17]

'예수'(헬/ 이예수스)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예호슈아)의 음역이다.
이 이름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요5:39, 딤후3:15]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내용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에 귀결된다. *[고
전2:1,2]

예수와 세례 요한의 만남과 그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의의 성취를 알리는 예표(豫
表)이다.

결국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롬3:26]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
셨느니라 [롬4:2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났다.

인간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패역이고, 하나님의 것은 사랑이다.

예수를 능욕하는 패역의 현장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여졌다.

죄패에는 죄명이 기록되는 곳인데, '유대인의 왕'이 죄명이 될 수 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에게 예수는 '자칭 왕'이고 가짜 왕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결국 패역한 인생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를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셨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10] ☞

성령과 교회/ 행1:4,5 고후6:17, 계2:7/ 20230423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행1:5]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후6:17]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옮겨 주셨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마16:18, 고전1:2]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와를 구분하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냐에 의해 결정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2:7]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여 첫 사랑과 첫 행위를 잃은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결과이고 그 믿음의 실현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 중에 아무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고 부활을 기다린 제자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전15:20]

부활하신 예수의 "성령을 받으라"는 탄식*[요20:19-23]에 이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여전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이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자인가?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겨주신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에 진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염소처럼 자신의 한 일의 증거를 나타낸다.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율법사에게 예수께서 제시한 영생을 누리는 세계가 있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일, 주막으로 옮겨지는 일, 주막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일이다. *[눅10:25-37]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와 성령의 형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

안식과 하나님 나라/ 창2:1-3/ 20230426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2:2-3]

하나님의 모든 일의 완성은 '영원한 안식'에 있다.

안식은 일을 다 이루었을 때, 일을 다 마치었을 때 얻는 결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의 완성과 끝났음을 분명히 하시면서 안식의 일곱

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을 누리는데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안식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는가?

성경은 첫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안식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여 주신 일을 증거하고 있다. *[창3:17-19, 마11:28, 12:8]

아담의 불순종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안식 없는 곳이 되게 하였다.

사람들은 안식이 없는 곳에서 안식을 구하는 수고와 고통과 소멸의 현장에 갇혀 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시 107:10-12]

깊은 수고는 탄식을 낳고 이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기이한 일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3:16]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인생을 위한 화목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패역한 인생은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인자*[시17:7]를 인하여 그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6:35]

예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요6:26-59]에게 받아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

열심히 예수를 찾아 온 자들을 향하여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썩는 양식을 위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도무지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인 자신을 소개하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나를 먹고 마시는 일이 유일한 영생임을 밝히셨다.

이 말씀은 유월절 규례의 형식만 남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월절 어린 양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백성을 밝히시는 말씀이시다. *[사9:2]

그러나 스스로 예수를 찾은 자들은 모두 떠났다.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는 스스로 예수를 찾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들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6:44-45]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일,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일, 유월절을 배우는 일, 율법을 아는 일은 예수께 속하기 위한 일이고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114편/ 20230503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114:8]

하나님께서 언어가 다른, 섞일 수 없는 애굽 민족으로부터 야곱의 집을 불러낼 때, 앞장 서는 유다는 여호와와의 성소가 되었고 그의 백성은 여호와와의 권세를 나타내는 영토가 되었다.

홍해와 요단에 넘실대던 사망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지 못하고 물러갔다.

여호와와의 강림은 산들을 흔들고 양 무리 같이 뛰놀게 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눅19:40]

모든 육체가 야곱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여야 할 것은, 그는 반석을 못으로, 차들로 샘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11:19-20] ☞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편57편/ 20230507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57:2]

오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다.

성경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한 처소가 보인

다.

이는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이 반영(反影)된 세계이다.

레위인은 이 땅에 기업이 없으므로 하늘에 속한 기업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다.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는 하늘에 베풀고 사셨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서로 다툼을 인하여 겪는 어려움은 인생사(人生史)에서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헤치고 나올 수 없는 구덩이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마5:40]

자신을 법에 고소하여 속옷을 취하려는 자에게 겹옷까지 벗어주는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못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과 사람의 다툼에서 어느 한 편을 위하지 않으신다. *[눅12:14]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툼의 진원(震源)을 설명하여 주시고, *[렘2:19, 약3:13-18]

그 진원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분명히 하신다. *[렘17:9, 마15:18]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약4:1]

'다툼'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툼'이 전부이다.

다툼은 다툼을 낳고 다툼은 다툼을 자라게 한다.

더욱이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는 인생인 줄 안다고 할찌라도 찌르고 영키는 다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다.

다윗은 이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윗의 시편은 데칼코마니와 같이 대칭된 두 세계를 노래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세계이다.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11:28-30/ 2023051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11:28-30]

백부장 고넬료는 자신의 신분이 베드로와 많이 달랐으나 베드로에게 듣고자 하여 그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 149:4]

겸손은 거만, 교만, 오만, 자고(自高)의 반대 개념으로 성서에 일관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덕목이다. *[잠22:4,골3:12]

그리고 겸손은 낮고 천한 식물인 '우슬초'에, 도수장으로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사53:7]의 모습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성품이다. *[눅9:9,빌2:6-8]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왕'은 흠모할 것 없는 우슬초의 모습으로, 사생자로 오해받을 만 한, 목수(木手)의 아들이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1-12]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우슬초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심령이 가난하고 우슬초와 같이 낮은 마음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의 마음에 만들어진다.

본래 죄의 종이었던 자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것처럼*[롬6:17-18], 먼저 떼고 있는 멍에에 대한 감각과 탄식이 "내게로 오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한다.

그리고 예수의 멍에에 함께 하면서 비로소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사57:15] ㅎ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좃으니라/ 눅5:27-28/ 20230514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좃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좃으니라 [눅5:27-28]

예수의 제자 중 대략 절반은 어부이든지 뱃새다(어부의 마을) 사람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나머지는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만이 직업이 분명하다.

예수님 앞에 세상 사람의 직업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 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다. *[고전1:26-29]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 '것들'에 속하는 일은 저주이다.
그래서 이 '것들'에 속하지 않으려는 수고와 노력이 삶의 전부가 아니겠는가?

세관이 앉은 마태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나를 좃으라"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세관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좃았

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세관에 앉은 마태의 모습이 전부이겠지만, 처음이요 나중인 분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속에 있는,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를 좇는 마태를 보셨다.

예수의 시각은 마태의 장래사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모든 것'이 제자들의 그물과 배와 가족과 직업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또 목숨까지 버릴 마음으로 예수를 좇았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못한 제자들인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자는 버리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좇을 수 없게 된다.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을 때,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제자들은 대답하였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은 예수를 잃게 하는 세력이다.

'모든 것' 안에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린 자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 ✞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시 107:10-15]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염밭이 되게 하신 일이다.

그리고 다시 광야를 변하여 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변케 하신 기이한 일로 주린 자를 먹이셨다.

이 기이한 일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간증이고 구속의 증거이다.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한 인생은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의 쇠사슬에 매인 삶에 머문다.

그리고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절망은 비로소 '여호와를 찾는 탄식'을 만들어 낸다.

이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기이한 구원을 나타내신다.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하는 심판의 눈문을 깨뜨리시고 열지 못하게 하던 쇠 빗장을 꺾으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3:17] ✞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7:37-39/ 20230521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7:37-39]

○ 율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ΠΠ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7일은, 애굽의 온 천지가 호곡으로 진동하는 공포의 시간이었다.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일은 성경의 중심을 흐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메시지이다.

1,500년이 지난 후,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 앞으로 큰 무리가 모였다.

예수께서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나, 실상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자들이다.

내 백성이 두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렘2:13]

유월절은 어린 양을 먹으며 대속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담겨질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을 외쳐 더하셨다.

생수의 강,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회복한 자의 믿음의 열매이다.

이 구원의 믿음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다.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의 환승(換乘)이고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누리는 환생

(還生)의 능력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증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요4:10]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는*[고전6:13] 썩어질 굴레와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던 인생이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주신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겠는가? ☺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요9:39-41/ 20230524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 [요9:39-41]

제 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의 저주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는 소경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다.

소경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 바른 눈을 씻고 보게 되었다.

소경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안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며 이를 들을찌어다 [렘5:21]

소경으로 출생한 사람이 눈을 뜨지 않고는 빛의 세계를 알 수 없다.
눈을 떠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듣고 배워 알게 된 빛의 세계는 소경의 머리에서 학습되고 만들어진 빛의 세계이다.
이런 사람은 빛에 대한 지식이 있으나 여전히 소경이다.
빛의 세계는 빛이 보여야만 깨달을 수 있는 세계이고 눈 뜬 자의 세계이다.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서 영적 소경이고 귀머거리이고 지각 없는 자들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하심이다.

소경인데 소경인 줄 모르는 자가 죄인이고 귀머거리인데 귀머거리인 줄 모는 자가 거짓 영인 죄에 사로잡힌 자이다. *[사29:13,14]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귀머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지각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다. *[단2:20,21]

"너희가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9:41]

✞

도를 행하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 약1:22-25, 호14:9/ 20230528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말라 [약1:22]

아담 안의 모든 인생은 악하다. *[마12:35]
아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고 아우는 의로운 행위를 나타냈다.

*[요일3:12]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 존재이다.

가인과 아벨은 그 출생이 동일한 나쁜 나무의 신분이다.

가인은 자기 자신에 속한 행위를 나타내었지만, 아벨은 자기에 속한 행위가 아닌 다른 선한 행위를 나타냈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세력이다.*[눅18:19, 롬3:4]

아벨의 행위는 자신의 것에 머문 행위가 아니라 '의로운 대속의 도'를 따라간 행위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의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 14:9]

이 도(말씀)를 행하는 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드러다보고 실행하는 자'이다.

호세아서 14장은 이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구체적인 설명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판정에 의하여 완전히 그른 자신을 발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이끌림을 받는 자이다.

그러나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가인의 길을 밟는다.*[유1:10-11]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들은 말씀 속의 자신을 부인하는 자이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요9:41, 사14:13], 스스로 취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이다. &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6:1-6/ 20230531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6:3-4]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는가?

오른손의 하는 일은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손의 주인이 하는 일이다.

만일 오른손이 스스로 옳은 일을 하였다고 생각한다면, 몸에서 떨어진, 주인을 잃은 오른손이 아니겠는가?

주인이 없는 오른손, 왼손이 있을 수 없지만, 성경에는 주인 잃은 오른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염소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 오른손의 모습이다.

염소는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은 섬김을 받은 적이 없다.

오른손이 주인과 단절된, 주인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마음은 다르다. *[벧3:7-9]

전자(前者)는 세상을 향한 음란한 마음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향한 "전자의 마음이 할례된" 마음이다.

옳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오른손은 옳은 일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오른손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손이 아니다. 이미 찍혀 떨어진 손이다. *[마5:30]

그리스도 안에 오른손 왼손이 없다.

모두 붙어 있는 손이고 의의 도구이다.

주인의 영광과 존귀를 붙어 있는 모든 것이 함께 누린다.

붙어 있는 손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된 것이 보상이 아닌가? ☞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찌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전9:1-2]

바울의 이 간증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삶의 규모와 자유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밝히는 고린도전서 9장의 서두(序頭)이다.

바울의 결론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19절), 복음을 인하여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12,15,18절).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임을 확증하는 증거를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듣고 이 끌림을 받은 자와의 관계로 제시한다(2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사도가 존재하고, * [고후11:2]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난다. * [고후6:2]

사망 가운데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생명을 생명으로 여긴 믿음의 열매이다. * [롬10:10]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으로 얻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16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발견되려는 것임을 밝힌다(23절).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복음에 참여된 은혜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 은혜에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육신의 요구를 제어하는 힘이다. * [롬8:13]

✚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 금령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찌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레4:13-15]

레위기 4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그리고 평민에 대한 속죄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다.

제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범한 죄를 깨닫는" 일이 제사의 시작을 알린다.

나면서 소경인 사람은 소경인 줄 깨달아야 빛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죄를 깨달아야 '의(義)'의 제사*[시4:4-5]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제사는 죄를 깨달은 사람이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준비된 예법에 참여하여 죄가 처리된다.

제사의 시작은 '흠 덩어리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죽 옷'에 기원 한다.

이는 죄가 깨달아진 아담*[창3:20]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속의 제사'이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제사는 '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 창세기 3, 4장 말씀을 근거로 죄를 깨닫는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모세의 율법에 금령이 포함되어 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죄를 깨닫는 일은 아담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폐역한 자신을 깨닫는 일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 믿어진 것이다.

'없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다.
죄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있다.
죄의 정체가 뚜렷이 보이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세계가 밝히 보인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51:17] ✞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엡1:3-6/ 20230611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 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1:3-6]

에베소서 1장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여섯째 날의 완벽한 재현(再現)이다.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흠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전 15:47]

여섯째 날에서 첫째 아담의 형상을 볼 수 없다.
첫 사람 아담의 세상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러 끝이 난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잃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저주 받은 땅에 속한 흠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변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모든 것에 매인 삶에 갇혀버렸다. * [렘2:13]

여섯째 날의 사람은 살려 주는 영의 마지막 아담임이 분명하다.
마지막 아담 예수는 첫 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자를 위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오
르셨고 첫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회복하여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잃어버린 여섯째날을 회복하고 일곱째 날을 누리는 삶이
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 믿어진 것이다. ☩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엡2:1-7/ 20230614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
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
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
심이니라 [엡2:1-7]

그리스도의 피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에게 유효하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구체적인 형상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행
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진노의 자녀의 본성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공중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이고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으로 이끄는 세력이다. *[\[엡5:3-7\]](#)

이 죄를 짓게 하는 사망의 악취를 뽑어 내는 자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이고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죄인으로 하여금 허물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시 19:12\]](#) 죄를 이길 수도 없게 한다. *[\[시65: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러한 절망적인 인생에게 유효하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가 죽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롬6:17-18\]](#) 이 사람에게 준비 되어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세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위하심이고,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심은 이 죄인을 위한 대속의 확증이고, 부활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는 영화로움의 광채이다. *[\[히1: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하는 자들의 지혜이고 *[\[고전1:30\]](#) 능력이고 영광이다. ☩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엡3:7-9](#)/ 2023061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엡3:8-9\]](#)

바울이 자신을 작고 작은 존재로 알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자신도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본질상 진로의 자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바울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은혜와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결과이다.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입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자로 하여금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우월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신 것이 아니다.

'본질상 지노의 자녀들 중에 한 무리를 택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드러내시고, 그들 중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다.'*[골1:6]

불 붙은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소멸의 현장을 보이시며 그를 쓰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예수의 마음*[빌2:5-8]을 바울로 하여금 품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다. ☞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엡4:22-32/ 20230621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2-24]

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구하시는 성도(聖徒)의 삶,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이다. *[1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마 11:29, 골3:12]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부름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 나타난 이 성품은 이 성품에 이끌린 자들의 옷이고 능력이 되었다. *[롬4:6-8]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앞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말씀이 함께 한다.

*[22-23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입혀 주신 구원의 옷은 옛 사람을 벗는 자에게 입혀진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로운 선물인 은사(恩賜)이다. * [7,8,11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봉사의 세력은 부름을 입은 자신을 보호하고 부름을 입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

성도의 삶은 자신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이와 그 일이 나타나는 삶이어야 한다.

이는 성화(聖化)가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다. * [3절] &

빛의 자녀들/ 엡5:8-14/ 20230625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엡5:8-9]**

어두움에 속한 자는 빛을 깨달을 수 없고*[요1:5]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
는*[요3:19] 자들이다.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세력*[골1:13]이고 음행과 탐욕의 악취를 뿜어내는 열린 무덤이다.*[롬3:13]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빛의 자녀들의 본적은 어두움이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어두움에 대한 뚜렷한 분별의 반응이다.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더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마음이 빛 가운데 이끌리는 마음이고 열매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진 결과이다.

창세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곳으로 모으시고 물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드러난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하셨다. *[창 1:9-13]

말씀대로 물이 드러나고, 말씀대로 땅은 채소와 과목을 내고, 말씀대로 씨와 열매를 내는 채소와 과목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빛의 자녀는 말씀에 다스려지고,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의 열매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행26:18] ✞

전신갑주/엡6:10-20/ 20230628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6:10-12]

사람의 혈과 육으로 마귀의 꾀계를 이길 수 없고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고전15:50]

혈과 육의 세력을 의지하는 구습을 벗는 새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새 사람에게 준비된 전신갑주는 이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
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삶은 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 용사의 모습이다.

전신갑주는 마귀의 간계를 파하는 그리스도인의 무장(武裝)이다.
이 전신갑주의 전투력은 입고 의지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경험된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옥에
간혔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요셉의 전투력은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많은 어려움과 곤궁한 지경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입었고 강력한 전투력을 나타내
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단련된 자이었다. * [창39장, 시105:19]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없어질 허구의
세력이다.

허구의 세력을 허구로 여기는 삶, 그 세력을 이겨내는 삶이 전신갑주를 입은 삶이
아닌가? ☞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벰전2:9-11/ 20230702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벰전2:9-10]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였는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 족속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가?

각도로 새겨 만든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 인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있다.
금송아지는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이고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왔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는 자"로 여기셨다.
거듭남은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나라에 옮겨짐을 의미한다. *[벧전2:9]
어두움은 하나님을 잃은, 하나님 없는 세계이다.

바울은 이 어두움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신을 볼 수 있었다. *[행9:15]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엡5:8]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
*[엡5:14]

빛의 자녀들의 원적(原籍)은 어두움이다.
이 어두움의 터널에서 나온 자들이 빛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다.

7년 흉년*[창47장]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돈, 짐승, 전지(田地)가 생명을 보존하여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 물질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은 어두움에 속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누리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
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찌로다 [시137:1-5]

비록 수금은 버드나무에 걸려 있지만 시온을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의 슬픔과
탄식은 소리 없는 노래가 되어 흐른다.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는 백성의 이 노래는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과 기쁨의 원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벨론 강변 버드나무에 걸려 있는 수금에는 포로로 고통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
성의 과거와 현재와 소망이 함께 한다.

한때 여호와를 찬양하였지만, 지금은 여호와를 희롱하는 자를 위한 시간에 이르렀
다.

그러나 수금은 쪼개지거나 강물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버드나무에 걸려 있다.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다.

그러나 시온의 기억 속에 슬픔과 정죄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온은 여호와와 거룩한 산*[사14:32, 시2:6]이고 여호와와 거처*[시9:11]이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암1:2] 거기서 구원을 보내며*[시
14:7, 53:6], 거기서 축복하신다*[시128:5, 134:3].

지금 아무리 밤이 깊을지라도 시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벽은
온다.

'기다림' 안에 '밝아 옴'이 있다. ☎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2:1-5]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8:23]

이 아래 세상이 3차원의 영역이고, 예수께서 속한 세계가 4차원이라면, 3차원의 사고로는 4차원을 헤아릴 수 없다.

만일 3차원의 사고와 행위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자의적 숭배이고 인위적 종교 활동이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전10:20]

하나님과의 교제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옮겨진 자가 누리는 세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사실은 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고전1:30]

바울은 이 사실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실을 증거할 때, 자신의 약함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간증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전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여 주지 못한다면, 이 사실

은 3차원의 세상에 머물고 떠도는 공허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은 예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요6:15]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은 자신의 3차원 세상이 끝났음이 확정된 마음이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마음이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마음이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무시할 만큼 스스로 지혜있는 자로 여기는 자이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는 힘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한다. ☞

이것이 무엇이나/ 출16:12-15/ 20230712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16:15]

'만'나의 이름이 그러하듯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요1:10,26,31]
예수는 세상의 지혜로 헤아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철 풀무 같은 애굽*[왕상8:51]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홍해 바다 밑의 마른 땅과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만나'는 척박한 땅인 광야에서의 삶을 보장하는,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하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음식은 결국 '박한 식물'로 취급되었다. *[민21:5]

"이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양식이 그들의 혀에서, 입에서, 생각에서 "박한 식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상품의 세계를 주셨지만, 백성은 이 세계를 누리 지 못하고 도리어 패역을 드러내었다. *[사5:1-2]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우월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신9:5],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족속이기 때문이 아닌가? *[겔2:3, 시103:14, 눅5:32]

'만나'가 결국 그들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박한 식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에서도 여전하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예수'는 박제(剝製)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진심(?)을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만일 베드로의 충성이 성공하였다면 이 세상에는 '베드로의 예수교'가 탄생하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속하여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감지된 가난한 심령이다. *[마5:3] ☞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8:9-11]

로마서 8장은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풀려난 해방의 찬가로 시작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축복의 배경은 7장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이다.

육신에 매인 삶이란 육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는 삶이다.

비록 속죄된 신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원함과 마음의 법을 따라가면 도달하는 곳이 정죄의 구덩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 정죄의 영역에서의 해방을 포함한다.

거듭남은 도약(跳躍)이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義)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다.

육신의 정체는 어두움이고 불의이고 사망이다.

육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육신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40:1-3]

기다림의 대상은 육신의 내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세력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세력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력을 거부하는 유일한 세력이 자신의 육신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이다. *[\[롬8:7\]](#)

기다리는 자의 마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께서 기다린 자를 주관하여 주신다. ☞

육체뿐이라/ 시78:34-40/ 20230719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다 [\[시78:39\]](#)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에 일시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놓아 보내었다.

그러나 곧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뒤쫓아 갔고, 결국 홍해에 수장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는다면, 하나님 없는 바로와 다를 것 없는 육체뿐인 인생이다.

"육체뿐이라"는 말은 육체와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육체만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품고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담지 못하면 그 육체는 가고 오지 못하는 바람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이다. *[\[시144:4\]](#)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시78:9\]](#)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진노를 다 발하여 멸하시지도 않으신다.
그들은 육체뿐인 인생이기 때문이다. *^[롬8:7]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장막을 떠나시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홀을 옮기셨다. *^[창49:10]
새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히8:8]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금홍)니라 ^[사55:3]

대제사장의 판결 흉배 안에 '우림과 뚝뚝'이 없으면 모양 뿐인 제사장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증한 존재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백성의 정해진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늬뿐인, 육체뿐인 헛것들"을 위한 기이한 구원을 준비하셨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2:4-5, 12] ☞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고전3:10-17/ 20230723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3:17]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고*^[롬11:16],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면 성도도 그러하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오늘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이다.

*[고후6:16, 엡2:21]

그런데 교회 안의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이는 육신에 속한 일이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 더럽힘의 정체는 육신을 신뢰하는 허구의 세력이고, 세상의 지혜로 육신을 세우려는 활동이다.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세상의 지혜로 세워진 더러움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신다.

더럽히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교회는 각 성도의 은사와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회개하여 거룩함을 유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하는 자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이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 이 거룩한 터 위에 소멸될 가증한 세력을 세우려는 일이다. 터가 그리스도이면 그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집은 교회이다.

만일 교회 위에 아볼로나 바울이나 사람이 세워지면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가증하고 인위적인 종교 단체이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엡 2:2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안에 태어난 새 생명은 성전의 한 부분이다.

바울도 베드로도 오늘 태어난 새 생명도 한 부분이다.

서로 귀중하고 보배로운 지체이다.

이 지극히 아름다운 영역을 지키는 보혜사 성령은 영과 육의 분별로 육신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한다. *[고전2:13-14, 계2:7]

그리고 성령은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여기는 분별과 거룩함을 누리는 지혜와 교회를 섬기는 은사와 성도와의 교통을 주관한다. ☺

너희가 많이 뿌릴찌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찌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찌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군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피 볼찌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1:6-8]

약 2500여 년 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계시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비록 외형은 보잘 것이 없지만*[학2:3], 그 재건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다고 말씀하셨다.*[학2:9]

이 말씀 속에 "만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배가 될 성전"*[학2:7]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와 교회임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갇혀 있는 백성을 이끌어 내어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고 훼파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 일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재현될 수 있다.*[요2:19, 엡2:21]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훼파된 성전의 재건은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 안에 있는 것처럼, 대속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거듭난 성도의 삶은 나눌 수 없는 세계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다시 밝은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한 집에 머물며 성전 재건의 시기를 스스로 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속의 은혜만을 맛보고 다시 육신에 머물러 있는 백성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서는 "네 소위를 살피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다.

자기 집에 빠른 발의 결과는 허공을 밟는 삶*[고전9:26]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 삶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다.

성전을 짓는 일은 '오늘' 짓는 일이고 '오늘' 성전이 되어가는 일이다.*[엡 2:21]
지금 성전 지을 날을 계산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산에 오르기 싫어서 판벽한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육체가 요구하는 방향에서 돌이켜 육체가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올라간다면, 이는 허공을 밟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

✚

악을 선으로 바꾸사/ 창50:18-21/ 20230730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50:18-21]

창 세기 50장 말씀에 죽은 시신에 향 재료를 넣는 내용이 두 번 기록되어 있다.

죽은 자를 위한 향 재료를 40일, 그리고 70일 곡하는 장례 의식은 애굽에 속한 예식이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준수해야 할 규례라고 할 수 없다.

이 땅에 속한 애굽인의 사자(死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연출일 뿐이다.

무덤은 더러운 것을 처리한 곳이다.

예수께서 말씀 하신 '회칠한 무덤'과 '평토장한 무덤'은 더러운 것을 꾸미고 가리는 외식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창세기 50장에는 급속히 세속화 되어 가는 야곱 족속이 그려져 있다.
더더욱 암울케 하는 일은 요셉을 울리는 요셉의 형들이다.

야곱에 이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낸 하나님의 경륜은 무지개 약속과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을 이루신 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암울한 먹구름만 가득하다.

향품을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의 마음*[눅24:1]에도 어두움이 가득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시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셨다.

지금 애굽으로 옮겨진 야곱 족속에게 어두움이 가득하다.
그러나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언약은 별처럼 반짝인다. ☞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어린 양/ 마3:15-17/ 2023080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1)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3:15-17]

예수와 세례 요한의 만남과 그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의의 성취를 알리는 일이고, 구약과 신약을 잇고 완성하는 결정적인 예표(豫表)이다.

세례, 침례(헬라어 baptisma)는 '침수한다'라는 의미의 말이다.
예수의 몸이 물에 잠김은 장사(葬事)를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심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열린 하늘의 새 세계*[마1:26]를 예표 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2:12]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간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자신이 속한 세계의 구분을 분명히 한다.

율법의 의(義)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지극히 절제된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이지만, 자신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기다리던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좇아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의 예식에 참여하였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예수는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식이다.

닫혀 있던 하늘이 예수를 향하여 열렸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를 증거하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한 세례 요한도 예수를 향하여 증거 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 &

하나님의 심판/ 벵후3:6-13/ 20230806

노아의 홍수는 온 세상을 죽음의 바다로 만든 하나님의 심판이고 후대 사람들을 위한 경고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이므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다. *[창6:3]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백후3:6-7]

홍수의 경고를 무시한 인생들의 높은 마음 위에 물이 덮이는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굳어진 마음을 소멸할 불의 심판이 준비 되어 있다.

이 땅에 속한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노아 홍수가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한 사역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백후3:9]

만일 죽은 자를 죽이는 심판이면 이 심판은 공허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마10:8, 롬4:17]

율법은 죽어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 *[롬3:19-20]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엄위(嚴威)이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심판 속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다.

태풍의 중심에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에 거하는 자들을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사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왕상19:14]

바알의 선지자 사백 오십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인을 하나님의 단 앞에서 죽이고 3년간 닫힌 하늘을 열어 비가 내리게 하는 엘리야이지만, 이세벨의 분노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워하며 "주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나이다."라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칠천 명을 남겨 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왕상19:18, kjv
흡정역]

하나님께서서는 엘리야만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칠천 선지자를 남겨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알(בַּאֵל, Baal)'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바알 선지자들의 하나님이다.
이 우상은 가나안 지경의 땅에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생산신(生産神)이다.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무릎'과 입 맞추지 아니한 '입'은 '풍요의 재신(財神)'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다스려진 무릎과 입이다.

이 여호와께 다스려진 무릎과 입은, 여호와와의 능력으로 육신의 본성(本性)이 거세된 무릎과 입이다.

인생의 본성은 육체의 풍요로움과 건강과 명예를 얻기 위한 정욕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본성을 육신의 원함이나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썩어질 세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려고 먼저 선지자를 백성 앞에 세우시고 선지자의 무릎과 입에 바알을 거부하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벧전2:11] ☞

옥터가 움직이고/ 행16:25-26/ 20230813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행16:25-26]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 귀신을 여자에게서 나오게 한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졌다.

한밤중에 이르러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게 되었고 죄수들은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다.

때에, 돌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더 큰 일이 벌어진 것은,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가 한 사람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한 사실이다.

깊은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오직 소망은 감옥을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입을 통하여 들려진 말씀의 힘은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함께 그곳

에 머물게 하였다.

바울과 실라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 깊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 마음은 형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진동하는 하나님의 세력은 죄수들에게 옮겨졌다.

지진이 있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기 전에, 하나님의 세력이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든 매인 것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였다.

그리고 이 옥터가 움직이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도 보고 읽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옮겨 와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진동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힘이다. *[사61:1] ✞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나1:1-3/ 20230816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나1:2-3]

여기 나훔서에서 회오리와 광풍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친 호흡이다.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지존자의 결단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인생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탄식이 아닌가?

100여 년 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니느웨는, 이제 격노하시는 하나님의 엄위 아래 멸망에 이르렀다.

이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니느웨만을 향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날 복음을 들었으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향한다.

회리바람과 광풍을 사역자로 삼으시고*[시104:4], 죄인을 발아래 티끌로 두시는 하나님의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한 모든 재앙에서 창조주의 죄와 죄인에 대한 분노를 감각하는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제시하신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모든 인생에게 임한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날이다.*[말4장]

십자가에 모든 인생의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심판하셨다.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온전히 반응하는 영혼은 '대속'의 구원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셨다.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회리바람과 광풍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을 결코 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있다. &

예수의 권세/ 마21:23-27/ 202308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마21:23-24]

선 지자 말라기의 예언과*[말4:4-5] 이에 대한 예수의 증거*[마17:10-13]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계획과 권세임을 증거한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할 수 있는 자는 예수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없으신 것이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심이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예수의 일을 하나님의 권세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에게 성경은 있었지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신 성경 속의 말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성전과 제사법은 있었지만,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멀어 있었다.

그들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전능자의 위엄과 믿음을 인정할 수 없었다.

예수의 사역을 납득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께서 제시하여 주셨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통찰의 열매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보는 말씀과 율법의 권세에 온전히 다스려진 자의 마음에 맺히는 열매이다.

이 믿음이 예수의 권세 아래 이르게 한다. *[롬1:17]

죄를 모르고 예수를 알 수 없다.

나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권세에 다스려진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려져 '죽은 자'로 발견된 사람이 예수의 권세 아래 살 수 있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성경은 첫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안식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여 주신 일을 증거하고 있다. *[창3:17-19, 마11:28, 12:8]

아담의 불순종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안식 없는 곳이 되게 하였다. 사람들은 안식이 없는 곳에서 안식을 구하고, 안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안식을 구하는 수고와 고통의 현장에 갇혀 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시 107:10-12]

고된 수고는 탄식을 낳고 수고와 탄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고는 더 무거운 수고와 더 깊은 탄식과 공허를 낳는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히11:3]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여 주기 위한 잠시 세계이다.

첫째 아담 안의 모든 수고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따라 가는 결과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회개(悔改)는 회전(回轉)의 동작과 함께 한다.

예수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고을, 고라신과 벳새다와 가버나움을 저주하셨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이들의 지혜와 슬기가 아닌 다른 안식의 방향을 제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좇은 결과가 안식을 잃은 것이면, 안식을 회복하는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 말씀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조준되어 있다.

예수께로 가는 일은 예수의 멍에를 함께 메는 일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롬6:3-5]

예수와 멍에를 함께 메는 일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함께하는 일이고 안식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히 4:10]

몸이 피곤할 때 침대가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빗쟁이에게 탕감이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죄인에게는 십자가 그늘이 안식처가 된다. ☞

영원한 제사/ 히10:12-14/ 20230830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10:12-14]

한 사람의 '모든 죄'의 범위를 정한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죄악된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 규정은 훨씬 단순하다.

그것은 첫 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이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잃은 아들, 죽은 아들'*[눅15:32]인 것처럼, 하나님을 잃은 아담은 사망의 영역에 갇혀서 악취를 뿜어내는 무덤 안의 존재이다.

그러나 이 무덤까지 이른 예수께서*[벧전4:6] 첫 사람 아담의 몸을 벗으시고 새 몸을 입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10:12-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세상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속의 능력이다.

'영원한 제사'는 영속(永贖)*[단9:24]의 의미와 함께 '완수(完遂)와 새 영역으로의 도약(跳躍)*[히9:26]을 표한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한 자를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다.

'영원한 제사'와 함께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설명하는 말이다. ☞

바리새인들의 누룩/ 눅12:1-5/ 20230903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
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눅12:1-5]

외식(外飾)은 겉을 보기 좋게 꾸미어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짓된 행위이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통렬(痛烈)하게 질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경
고하신다.

누룩은 부풀리는 세력이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0점인 인생이 100점인 줄 착각하고 산다면 누룩에 부풀려진 거
짓된 존재이다.

“회칠한 무덤”은 ‘사망’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바리새인의 형상을 지적한
말씀이다.

만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고 배우고 아는 예수의 제자가 암암리에 음식을 위
하여 목숨을 거는 삶을 산다면 바리새인만큼 외식 되고 가증한 세력에 붙잡힌 결
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증한 누룩의 세력이 배양되는 곳이 어두움에 속한 인생의 마음과 생각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의 속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눅11:39], 바리새인의 눈
으로 자신을 볼 때 자신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아니하였다.*[눅18:11]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
리라 [눅11:34]

자신의 속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온전하지 못한 자의 삶은 가식으로 열매 맺는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모르는 자의 마음에 누룩의 세력은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이 악한 세력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이다.

성경은 ‘천지(天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땅이 보여야 하늘이 보인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얻은 자가 땅을 볼 수 있다.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밝히 보인 자에게 유월절 어린양이 뚜렷이
보인다.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이다. ☞

활 노래/ 삼하1:17-27/ 20230906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히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삼하1:19]

‘**활** 노래’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사울과 요나단을 ‘용사’로 여기는 다윗은 그들의 병기인 방패와 칼과 활이 용사의
힘을 나타내지 못하고 망하게 됨을 슬퍼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그 왕위를 스스로 지키
려는 망상에 사로잡힌 길을 갔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불의를 알지만, 사울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두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은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다. 야셀의 책은 ‘의로운 자
의 책’이라는 뜻의 책이다.

두 사람의 죽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 교훈을 전하여 주고 있다.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이지 선멸의 대상이 아니다. *[\[출17:14,삼상15:3\]](#)
하나님께서서 육체를 버리신 것처럼*[\[창6:3\]](#) 아말렉을 버리셨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과 함께하지 못하였다. *[\[삼상15:9\]](#)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은 사울은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사울의 방패는 대적의 화살을 막을 수 없다. *[\[엡6:16\]](#)

사울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용사이고 병기였으나, 물리
가*[\[시78:9\]](#) 전쟁의 날에 앞드러졌다.

이들을 향한 다윗의 슬픔은 오늘날 방패 잃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닌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13\]](#) **윤**

빛으로 밝히 드러나는 삶/ 에베소서 5장/ 20230910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
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6:3\]](#)

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벽빛 같이 일관된 규례로 듣는 자의 마음을 적신다.

창세의 시작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온 땅을 적시고 다스리는 하
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여긴다면,

창세 셋째 날, 이 물의 세력이 집행되어 한곳으로 모인 결과, 물이 드러났고 드러난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자라게 되었다.

말씀으로 비추어진 마음의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면 그 마음에 맺히는 열매가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는 땅에 빛이 비취므로 비로소 혼돈이 혼돈으로, 공허가 공허로, 흑암이 흑암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여기는 마음에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소망이 함께 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5:8]

빛으로 드러난 것들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에 속한 것이 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엡5:11-13] ☞

선 줄로 생각하는 자/ 고전10:12-17/ 20230913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10:12]

가시광선이라는 말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있으므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사람의 눈으로 모든 빛을 볼 수 없다.

사람의 귀로 모든 음파를 감지할 수 없다.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범위는 만물의 일부분이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희로애락도 부분적이고 순간적이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일부분을 경험하고 일부분을 아는 인생이 스스로 전체를 아는 존재로 여긴다면 이 사람은 어두움에 속한 자이고 교만한 자이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요1:5,10]
하나님의 복음은 영적 소경, 중풍병자, 문둥병자, 죽은 자들에게 들리는 영적 지식이다.

이 지식은 죽은 자를 살리는 지식이지 육체를 세우는 지식이 아니다.

이 지식에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포함한다. *[전3:11, 잠25:3]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시71:15]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붙잡힌 구원"을 증거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빌3:12]

"붙잡힌 구원"은 안전하지만, 만일 "붙잡은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놓칠까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워 놓은 구원"이 아니라 "붙잡아 주시고 섬겨주시는 구원"이다. ☞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히13장/ 20230917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13:9]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의 내용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로 시작하여 “나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로 정리되었다.

중심 내용은 교회의 대인 관계와 혼인에 대한 권고, 돈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 자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글이다.

“주는 나를 돕는 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주를 향한 견고한 신뢰가 글의 중심에 흐르고 있다.

주의 도우심, 주의 은혜는 빈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흐른다.

주께서 피를 흘리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자신의 모든 권을 내려놓으시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신 열매이다. *[벨2:5-8]

이 길을 따라가는, 자신의 권을 내려놓는 사도의 길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읽을 수 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은 마음, 주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 마음은 교회를 인도하는 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음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스스로 인도자의 자격을 세우는 자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

사도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고전15:8-10] 성도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딤후1:9, 베드로 후서 3:18]

이 은혜를 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는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사41:8-9,14/ 20230920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
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사41:8-9, 14]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창
4:23]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방어와 공격의 삶"이라는 인생사(人生史)에 나타난 이 명
분은 라벡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테러의 배경에도 이 구실은 여전하다.
그러나 테러 집단의 명분 속에는 스스로 자신을 옹계 여기므로 형성된 증오가 있
다.
그리고 이들의 증오의 결과는 또 다른 증오를 낳는다.
오늘날 개인이나 국가가 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사람에게 기생충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일 것이다.
기생충은 자신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숙주를 공격하기도 한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고 싫고, 밋고 가증한 존재이었
다.*[요15:23-24]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종교 공동체를 지키려고 테러를 저질렀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다.

야곱은 예수를 버렸으나,*[사53:3] 하나님은 야곱을 싫어 버리지 아니하셨다. ☞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6:17]

바울을 괴롭게 하는 세력에 대하여 바울이 준비한 방패와 창은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세력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자들이다.

이들 중에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사족(蛇足)을 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예수의 흔적이 아직 새겨지지 못하였든지, 아니면 예수의 흔적에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이리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얻는 표가 된 것처럼 예수께서는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표적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유월절이 새날의 시작*[출12:2]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의 새날을 여는 시작이다.

세상과 나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kjv) [갈6:14]

육신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자는 예수의 흔적이 흐려질 수 있겠으나, 사망의 못 자국이 뚜렷한 자에게는 그 예수의 흔적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여호와와의 절기를 누리면 산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인하여 비록 괴로움은 있으나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는 믿는 자의 마음에 더욱 뚜렷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으로 인해 복음의 증거는 도리어 견고함을 얻는다.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고 힘이다. ☞

믿음이 연약한 자/ 롬14:1-9/ 20230927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롬14:1]

교회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임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믿음에는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함께한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근거이고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는 힘이다. *[히 11:6]

아브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자신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었다. *[창15:2]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의 마음에 받아드리기에 어려운 후사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아브람은 흘러가던 생각의 방향을 달리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다.

풍향계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종)은 하나님(주인)을 향한다. [잠언 8:34]

풍향계의 방향이 풍향계에 달린 날개에 의하여 정하여지듯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은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교회 안에 방향을 잡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이다.
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믿음이 있는 지체의 할 일은 무엇일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롬14:4]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그의 주인을 판단하는 것이다.
교회 안의 믿음이 연약한 자의 하나님과 믿음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이 아닌가? *[엡4:1-6]

지체의 연약함은 온 몸의 연약함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연약함을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가는 이들이 있는 곳이고 성령의 간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준비되어 있는 곳
이다. ☹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요1:11-14/ 2023100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
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1:11-14]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는 사람들의 빛이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이 빛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요한을

통하여 빛을 증거하고 믿게 하려 하였다.

결국 영접하는 자, 이름이 믿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들이다. [요1:1-13 요약]

영접의 시작은 요한의 증거다.

요한의 증거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함께한다.

요한은 켜서 비취는 등불이라. *[요5:35]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 알게 하는 등불이다.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 알게 된 믿음이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옮겨지게 한다. *[요
5:25]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라는 개념도 형성될 수 없다.

빛의 사역은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 시작한다.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후4:6]

요한의 등불은 어두움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

어두움이여야 빛을 영접할 수 있다.

어두움인 줄 알게 된 믿음 위에 빛을 알고 누리는 믿음이 함께 한다.

이 믿음은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순종과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과 불신과 교만이 함께한다. ☞

깨뜨려진 법판과 증거궤 안의 증거판/ 출34:1, 29/ 2023100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34:1]

3,500여 년 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반포하시고 이동식 성막의 제도를 보여주시며 열 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다. 이 돌판을 증거판, 법판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 돌판을 새겨 주셨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날, 이 돌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뛰노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 깨뜨려졌다.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집행된 결과이다.

첫 돌판이 깨뜨러지기 전에 이미 둘째 증거판의 용도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가 정하여져 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출25:21]

이 증거판은 지성소 안의 속죄소 아래 법궤 안에 두기로 결정되어 있다.

첫 번째 돌판이 죄와 사망의 법을 집행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였다면, 두 번째 돌판은 속죄소(시은좌) 아래에 두어 죄를 속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한다.

오직 둘째 장막(지성소)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히9:7]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9:22]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10:9-10]

첫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은 이 두 돌판에 나타난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에 다스려진 자에게 유효하다.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요5:46]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지고 둘째 것, 새 언약의 법이 새겨져 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 10:16-18] ☞

물로 된 포도주 / 요2장 / 20231008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2:7-9]

바로의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이 세상과 모든 인생에게 이미 주어진 결정
이다.

이 법칙은 가나 혼인 잔치에도 적용된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일은, 맛 없는 액체가 맛 있는 액체로 변한 이적이다.

이 이적은 예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려는 의도이신가?

작은 시골 농가의 혼인 잔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였다면 더 없이 즐겁고 영광스런 연회일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이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예시하는 일이라.

물이 포도주가 된 일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실 모든 일의 상징적인 표적이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쁨 잃은 이 세상을 기쁨 있는 새 세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첫번째 이적이시다.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은 기쁨 없는 삶에서 기쁨 있는 삶으로 옮겨진 구원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 4:7] ☞

니고데모와 예수/ 요3:10-15/ 20231011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3:12-15]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을 근거로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거듭나는 세계를 설명하여 주셨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말씀에 이끌릴 수 없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더하셨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세 가지 말씀 안에 담긴, 반복된 하나님의 두 가지 결정된 세계가 있다.

하나는 ‘반드시 버려져야만 하는 세계’이고 또 하나는 ‘버린 자가 얻고 누릴 수 있는 세계’, 곧 하늘에 속한 세계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기 위하여 버려져야만 하는 세계가 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
라 [고전15:42-44]

썩을 것이 썩은 줄 아는 믿음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믿음으로 옮겨진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은 버려져야만 하는 것이 버려지지 못
하여 나타나는 반응이다. ☞

우물가의 예수/ 요4:13-25/ 202310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4:13-14]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마셔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곳을 위하여 준비된 세계이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려고 우물 곁에 앉으셨다.

마실수록 목마름 물이 있고 더 이상 갈증을 겪지 않게 하는 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목마름의 연속이었고, 해결의 소망으로 하였던 여섯 번의 결혼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렘2:13]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의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얻는 생수로 살아 보려고 하였으나 그 웅덩이에서 얻은 물은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걷는 메마른 삶의 길목에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생수를 마실 수 있었다. ☞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5장/ 20231018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요5:8-9]

㉠ 대인 명절의 시작은 유월절이다.
㉡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다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유대의 명절이 가까운 어느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양문(羊門)에 오셨다.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고달프고 고통스런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치유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는 하나님 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께서 삼십 팔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묻고, 말씀하셨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삼십 팔년 된 병자에게 하신 이 말씀에는 두가지 요구가 함께 한다. 병에서 나음을 입는 일과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이다.

이 두가지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일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교병 반죽을 어깨에 매고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지는 일과 견주어 설명될 수 있다.

유월절의 구원은 생명을 얻은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옮겨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삶으로 완성된다.

새 생명을 얻은 일은 그 생명의 세계를 누리는 일과 함께 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삼십 팔년 된 병자가 누웠던 자리는 세상의 경험으로 굳어 버린 생각의 자리이고, 사망의 세력이 충만한 곳이고, 영적 애굽이고, 곧 무덤이다.

예수께서는 이 ‘자리’에 지배 당하는 삶이 아니라 지배하는 삶을 명하셨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인 것처럼, 완성된 구원은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만일 함께하지 못할 때, 구원의 하나님은 박제화 된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삶’은 세상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할례된 마음과,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누리는 삶이다. ☞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요5:14]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형성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물 밖으로 나와도 여전히 우물 안의 개구리이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눅1:76-79]에 옮겨진 자는 옮겨지기 전의 사고(思考)에서 벗어난 자이다. *[엡4:22-23, 롬8:14-16]

삼십 팔년 된 병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간 일은, “죽은 자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일의 한 모습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일이다.

그러나 옮겨진 자가 옮겨지기 전의 사고 방식으로 산다면, ‘산 자’가 아니라 ‘산 자’의 모양을 내는 ‘죽은 자’이다.

예수께서 삼십 팔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다. *[14절]

‘더 심한 것’은 ‘산 자’의 모양을 내는 ‘죽은 자’의 삶이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3:3]

교회는 교리(敎理)를 닦는 곳이 아니라 완전함을 누리는 곳이다. *[히6:1-8]

계시록 3장의 사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죽은 행위에 대한 책망이다. *[계3:1-5]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완전한 삶은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

는 삶이다. *^[고후1: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전2:12,13] ☞

보리떡과 오천 명과 표적/ 요6:1-15/ 2023102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6:26]

ㅎ 모할 것 없는 보리떡이고, 오천 명이 먹을 만한 양의 음식이 아니지만, 이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넉넉히 먹고 남은 것이 열 두 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보리떡과 같은 형상*^[사53:2]으로 오셨고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예수를 찾아 온 큰 무리의 구하는 것과 예수께서 주시려는 것이 달랐다. 큰 무리가 본 표적*^[2절]과 니고데모가 본 표적*^[요3:2]은 표적의 껍질이다. 큰 무리는 표적 속의 표적*^[26절]을 볼 수 없었다.

결국 보아야 할 표적을 보지 못한 무리는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 *^[66절]

예수를 찾아 온 큰 무리에게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원함과 열심이 있다. 그러나 예수의 원함은 섬김을 받는 일이 아니라 먼저 섬겨주셔야 할 일이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바르는 절기에 함께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6,57절]

보리떡으로 오천 명을 먹이신 표적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표적이다.

그러나 떡을 먹은 큰 무리는 표적 속의 표적인 하나님의 어린 양과 연결되지 못하였다.

연결될 수 없는 이유는 큰 무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심은 이 큰 무리와 모든 자를 위한 마지막 표적이다. ☩

초막절과 예수의 형제들/ 요7:1-7/ 202310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7:6]

초막절(草幕節)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이다.

수확의 풍요로움이 있는 이 절기는, 절기를 지키는 동안 초막을 세우고 그곳에 거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의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다. * [느 8:14-17]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하늘에 속한 절기와 규례를 완전케 하신다.

그러나 예수의 친동생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절기를

누릴 수 없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께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예수의 때’는 정해져 있다. *[\[단9:24-26\]](#)

그리고 친형제들에게 아직 나타내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한 예수의 표적과 때는 “인자가 들리는” 일이다. *[\[요3:14, 12:32-33\]](#)

여호와의 절기는 유월절로 시작하여 초막절로 그 그림이 완성된다.

유월절은 구원의 날의 시작이고 초막절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절기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의 끝 날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과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절기를 완성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하나님)이 믿어진 결과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1:8-9\]](#)

예수의 친동생들은 예수와 함께하였으나 예수를 믿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를 믿고 사랑할 수 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예수와 함께하는 즐거움과 평안함은 땅에 속한 초막이나 궁궐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12]

예수께서 성전에서 앉으사 백성을 가르치시고 간음 중에 잡혀 온 여인에 대한 판결을 선포하심은 속죄소(시은좌) 하나님의 재현(再現)이다.

지성소의 법궤 위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뵈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받으신 백성의 영광이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실현(實現)되었다.

사망의 풍랑이 지나간 곳, 혼돈과 어둠이 물리간 곳에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일년 일차 드리는 유대인의 대속죄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의 닫혀진 휘장을 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증표는 대제사장의 손에 들린 희생의 피이다. *[히9:7]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닫혀진 그룹 휘장*[출26:1,[막15:38]]을 열었고 시은좌의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었다.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잃었던 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혀 있던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다. *[창3:24, 히10:19-20]

예수께서는 이 열어 놓은 길을 가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신다.

이 길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피로 열어 놓은 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12]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죄를 범하여 소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빛’ 되신 예수께서 어두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빛을 볼 수 없는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고, 실로암에서 어둠을 씻어 보내어 밝은 눈이 되었다.

소경의 눈이 밝아졌을 때, 물리적 현상의 빛과 함께 또 하나의 빛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참빛’이다. *[요1:9]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빛의 세계이다. 예수는 빛으로 오셨고, 소경은 이 빛을 보았다. 예수는 소경이 볼 수 있는 빛이다. *[요9:39]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경이 되었다.

그 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사29:1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 [요9:41] 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10:1-5]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하지 아니한 목자는 절도이고 강도이다.

삯군과 선한 목자는 이리의 출현으로 신분이 드러나고 구별된다.

삯군은 삯을 원하고 선한 목자는 생명의 풍성함을 원한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 삶을 산다.

삯군을 따르는 자는 삯을 구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이리가 나타나면 모두 흩어진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그리진 말로 자기를 좇게 하려는 무리를 '흉악한 이리'로 여겼다. *[행20:28-31]

그가 이 무리를 인하여 삼년간 눈물로 훈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렸다. *[벧 3:17-21]

양은 목자가 이끌고 목자가 지킨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일을 대신하는 자는 성령이다.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의 열매이다. *[갈5:22-23]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목자는 삯군이다.

삯군의 특징은 스스로 선한 목자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 ☞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11:43-44]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예수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언(虛言)이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나사로는 죽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은 더 이상 듣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 수 없었다.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도 무덤에 던졌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일은 두 가지 사실을 전한다.

죽었던 몸이 살아난 물리적 사실과 “**죽은 자가 살아난다**”*[마11:5]고 예고한 말씀이 성취된 영적 사실이다.

물리적 사실은 영적 사실의 외경(外景)이다.

외경은 내경(內景)을 설명하기 위한 껍질이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롬5:12]

‘죄’를 바이러스로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급성 또는 만성 질환자들이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죽을 병’ 환자이다.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세력이고 유일한 활동 장소가 사람의 생각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논리 밖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요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였다면,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11:21-27\]](#)

요한복음 11장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만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었다. *[\[요5:25\]](#)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죄와 허물을 인하여 생각의 구덩이에서 악취를 뿜어대는 시체와 같은 자기 형상이 감각된 자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다.

“나사로야 나오라!” ☞

마리아의 향유/ [요12:3-7](#)/ 20231115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12:3\]](#)

마리아의 향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葬事)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

이 향유가 자기 육체를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것인지 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향유가 되었다는 점이다.

마리아의 옥합이 깨뜨려진 일과 옥합을 깨뜨린 마음은*[\[눅7:37\]](#)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2절\]](#)”라는 말씀과 연결된 믿음의 열매이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쓰는 관유(灌油)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였다. *[\[출40:9\]](#)

이처럼 마리아의 향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함에 함께한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 있는 곳에 함께하는 자이다. *[26절]

‘예수 있는 곳’은 인자의 영광을 얻는 곳^[23절]이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곳이고, 인자가 땅에서 들린 곳이다.

이 곳은 모든 인간적인 것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고, 예수조차도 자의(自意)가 아니라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곳이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43:25]
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요13:1, 30/ 20231118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13:1]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13:30]

예수의 ‘자기 사람’은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요6:70]이고, 끝까지 사랑하신 자들이고, 빛의 자녀들*[요8:12, 엠5:8]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요8:31]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는 판 자이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간 자이고, 어두움에 속하여 끝까지 말씀에 이끌리지 못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마귀의 생각을 따라간 일과 예수를 판일과 어두움에 속하였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유효하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는 땅에서 들리셨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과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는*[요일5:10] 어두움의 세력이고 그 주체(主體)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12:31]

예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으나 가롯 유다는 끝까지 거절하였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에게 주신 떡 조각은 유다의 정체를 알려 주시는 예수의 사역이시고 최선이다.

유다는 이 빛의 사역에 이끌리지 못하고 깊고 깊은 어두움에 매몰되었다. ☹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14:1-6/ 2023112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14: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예수 계신 곳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통로(通路)로서의 시공(時空)에 계신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위한 처소를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예비 하셨다.

예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예수의 사람들은 쉼을 누린다.

시편 일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은 ‘의인의 길’이다.

이 길을 가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예수께서 이 길을 가셔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의인의 처소를 준비하셨다.

예수 계신 곳을 인생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

예수께서 먼저 각 사람을 찾으시고, 은혜를 입히시고, 함께하신다.

도마와 빌립은 예수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일을 가까이 듣고 보았으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로 듣고 볼 수 없었다.

예수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혜로 이룰 수 없는 곳이다.

예수의 계명*[15절]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케 된 사망과 생명의 법에 다스려진 자, 진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한다.

수난(受難)의 몰약과 치유의 유향과 영광의 황금이 어린 예수께 드리진 대로,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과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수난의 고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사랑으로,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백성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 ☩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
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요15:1-2]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
게 하려 함이니라 [요15:16]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의 제거 대상이고 ‘제하여 버릴 가지’는 요한
복음 15장 말씀이 기록된 이유이다.

제하여야 할 가지는 깨끗하지 못한 가지이고, 깨끗하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 농부
의 일러준 깨끗케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엡5:26]

제하여야 할 가지의 관심은 많은 열매를 맺는 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뿌리 쪽으
로는 관심이 있는 척하고 산다.

스스로 택한 자가 마귀에 속한 것처럼, *[요6:70] 스스로 열매 맺으려는 의도가 마귀
적이다.

가롯 유다는 스스로 주를 택하고, 스스로 주를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 전부를 결정
하였다.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체가 보상의 전부이고 은혜의 열매이
다. *[전3:19-21]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보상을 구하는 어리석
음에 머물 수밖에 없다. ☹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16:8-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사 세상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눅4:25]

땅에 속한 세상의 세력과 방향을 거슬러 이기신 예수께서 잃었던 안식을 회복하시
고, 그 이겨 놓은 세상을 성도 앞에 열어 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는 ‘진리의 영’으로 성도와 함께하신다.

예수가 원본(原本)이라면, 원본과 같은 지혜와 능력의 성령을 사본으로 이 땅에 보
내셨다.

보혜사 성령의 일은 책망으로 시작된다.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요14:17, 잠6:23, 엡5:13]

성령은 먼저 예수의 하신 일, 세상을 이겨 놓은 완료된 사실에 이끌리지 못하는 세
상을 책망하신다. *[요일3:6]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교회 안에 분별의 지혜로 함께하신다. *[계2:4-5]

이 성령의 음성과 책망을 듣는 일은 성도의 삶의 시작이고 예수께서 열어 놓은 세
상을 누리게 하는 분별이다. ☞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
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8-1-3]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수난이 영화로운 것으로 알게 되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심히 고민하며 십자가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되기를
구하였던 예수*[마26:38-39]에게 십자가는 영화로운 일이 되었다.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거룩하고 영화롭다.

영생 안에 영화로움이 있다.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권세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이 지식을 아는 일에 자라 가는 삶이 영생
을 누리고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삶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
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찌어다 [벧후3:18] 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 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전1:21-24]

Q / 목사님의 예화(오리와 백조)에서 백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날고 있는 백조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생각하는 동행은 무엇인지~ 디테일을 쉽게 듣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리와 백조에 관한 예화는 올해 1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제목의 노트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hindk55/222978197422>)

내용은 성화(聖化)에 대하여 제가 알게 된 성경적인 견해를 적어 본 것입니다.

요지는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거룩함을 얻으려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 놓은 분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동행’은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사람이 지구의 움직임을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못하든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 [마28:20]

이 사실이 믿어진 자는 더 이상 동행하려는 수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동행의 증거와 지혜도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행하시는 분(성령, 진리의 영)’에게 있습니다.

양자(養子)된 증거가 입양하여 주신 의부(義父)의 계획과 결정과 마음에 있는 것이 양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가 입양된 사실을 기뻐한다면 곧 의부의 기쁨이 되고, 양자는 마땅히 옮겨진 곳에서 의부의 마음과 그 가정에 흐르는 법도에 함께하는 일이겠지요. *[벧후3:18]

오리가 백조로 거듭났다면, 아직 익숙하지 못한 하늘을 나는 일을 백조들 틈에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세력을 거스리고 하늘을 누리고 사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의 영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육신과 세상의 크고 작은 세력을 이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화 된 성도들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

말고의 귀/ 요18:10-12/ 202312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18:10-11]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 하고*[눅22:37]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야 한다. *[마26:31]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기록된 말씀, 예수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을 향한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를 잡으려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모든 일의 결과는 기록된 말씀대로 되었다. 결국 예수께서

는 땅에서 들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렸다.

예수를 못 박는 무리에게만 예수를 능욕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베드로의 열심에 능욕의 세력이 숨어 있다.

그 때 그 곳,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져야만 하였다. *[시118:22]

예수의 대속은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한 대속이다.

베드로의 열심은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

예수께서는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셨다.

말고의 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마11:13-15]

복음 전도자는 귀를 베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

십자가 예수의 겂옷과 속옷/ 요19:23-24/ 20231213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요19:23-24]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

복음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이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다. *[사12:5]

에덴에서 발원한 강물이 갈라져 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의 겂옷도 네 깃으로 나눠 십자가를 떠나 흩어진다.

그리고 속옷은 옷의 역할이 보존되도록 제비 뽑혀 예수 십자가를 떠났다.

나뉘진 겹옷은 군병의 아내의 손에 옮겨져서 남편의 헌옷을 수선하는데 쓰일 수도 있다.

비록 작은 천 조각이지만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물건이다.

피에 젖은 속옷도, 제비 뽑아 얻은 군병의 손에서 가난한 친구에게 전해지면서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가 증거될 수 있다.

복음은 예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여지고 증거하는 자에 의하여 전하여진다. *[롬10:14-15]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예수의 속옷이 제비를 뽑은 자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은혜를 입는 자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세력이 임한다.

복음은 죽은 자에게 들리는 복음이고 은혜를 입은 자가 얻고 누리는 구원의 세계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엡 2:5] ☞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요20:11-16/ 20231217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 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요20:15-16]

향품을 들고 무덤가에서 방황하는 마리아의 슬픔은 예수의 죽음을 인함이고 마리아가 찾는 것은 예수의 시신이다.

이 마리아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부활의 예수는 마리아의 눈에 동산지기로 보였다.

이 현상은 일시적인 착시, 착각이 아니다.

지금 마리아를 덮고 있는 세력은 슬픔과 방황이 전부이고, 이 세력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 함께한다.

이 세력 아래 있는 자에게 부활의 예수가 보일 수 없다.

땅에 속한 인생에게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 지혜가 없다.

부활이 믿어지려면 하늘에 속한 지혜와 그 세력, 곧 성령이 듣는 자에게 임하여 땅에 속한 세력을 이겨주어야 한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셨다.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를 보았다.

슬픔과 방황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불러 주셨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시므로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다.

-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10:3]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
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21:18]

부

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을 베드로에게 던지셨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의 베드로* [마
26:33]와 많이 다르다.

그러나 예수의 세 번 반복된 물음은 베드로로 하여금 근심케 하였다.

다소 초점이 빗나간 듯 한 서로의 대화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과 함께 뒤
이은 예수의 말씀^[18절]으로 정리되어 있다.

(젊은) 베드로는 스스로 띠 띠고 자기 열심과 충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
께서 베드로를 받으실 수 없었다.* [요13:36]

그러나 닭 울음 소리와 함께 기억된 말씀에 이끌린 (늙은)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하
여 팔 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매인 삶의 길을 간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예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젊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팔 벌리는 늙은 베드로에게 주어진다. ☞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 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6-8]

예수의 탄생은 예고된 * [사9:6]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 제자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미치지 못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와 함께하면서도 ‘다 이룬,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이전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 [막9:1]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 * [눅9:31], 십자가의 일을 예고하셨으나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이지 않는다. (십자가의 일은 첫째 아담이 잃은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회복하신 일이다.)

제자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잃은 아담 안의 세계는 음부와 유명(幽冥)이다. * [잠27:20]
이 구렁이에 빠져 있는 자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놓으신 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첫째 아담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아담의 영역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진 ‘거듭난 자’*[요3:3]이다.

오직 성령이 옮겨 주고 회복된 나라를 누리게 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에게 성령의 증거가 있다. *[롬8:16, 요일5:7]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회복된 나라를 누리는 자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이다. *[눅 2:14] &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 시136:23, 고전1:26-31/ 20231227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136:23]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6-28-29]

우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가 마음에 있다. *[엡1:13, 4:30]

부르심의 대상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다.

비천(卑賤, 鄙淺)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비천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일이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

한나는 거름더미에서*[삼상2:8], 기브온 거민들은*[수9:5] 곶팥이 난 떡과 같은 신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수로보니게 여인*[막7:26]은 비천하게 여기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것들을 부르심은 그들에게만 유효한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십자가를 증거하려 하심이다.

오늘날 이 비천한 존재들은 세상 종교인에게 여전히 거리끼는 존재이고 세상의 지혜로 여전히 미련한 존재로 취급된다. ☹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고전2:9/ 20231231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2:9]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세계는 성령을 통하여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일4:10] 사랑을 입은 자들의 눈을 밝혀*[요일4:13]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를 보여준다.

이 세계는 사람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이다.*[사64:4]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병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타난 반응과 열매가 있다.*[막5:25-34]

그것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는 소망이고 그 소망을 따라 간 결과, 혈루 근원이 말라 버린 줄을 깨닫게 된 일이다.

여인이 경험한 일은 끊임없는 유출되는 피의 저주와 그 근원이 치유되는 이적(異蹟)이다.

여인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끝이 난 그 저주의 끝에서 새 소망과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시103:2-5]

혈루의 근원을 말라버린 하나님, 홍해와 요단에 흐르는 사망의 세력을 말라버리고 마른 땅을 드러내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의미를 같이한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구원의 세계는 오직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세계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세계이다. ✞



<https://blog.naver.com/shindk55>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베드로후서 3:18]